論 壇

大學入試 前·後期 分割募集方案의 分析

崔 祥 鎭
(中央大 心理學科 副敎授)

現行 大學入試制度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前期偏重現象에 대처하기 위하여 文敎當局이 발표한 바 있는 '前·後期 分割募集方案'은 各 大學의 自律的 選擇에 따라 84學年度 入試에서부터 反映·採擇될 것이다. 이 方案의 具體的 內容을 受驗生, 大學, 社會·國家의 相異한 利害集團의 側面에서 살펴보았다.

Ⅰ. 머리말

大學入試철이 다가오면 우리 나라에서는 온 社會가 떠들썩해진다. 메스컴이 그렇고, 大學과 高等學校가 그렇고, 入試生 자녀를 둔 家庭이나 두지 않은 家庭이나 모두 大學入試問題로 흥분하고 토론이 벌어지곤 한다.

하나의 새로운 入試政策이 發表될 때마다 웃는 大學이 생기고, 우는 大學이 생기기도 한다. 또한 불평하는 학부형과 고교생이 있는가 하면,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학부형과 고교생이 있게 마련이다.

文敎當局에서는 敎育의 本質을 해치지 않으면서, 이와 같이 다양한 多數人의 欲求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入試制度를 構想 硏究하는 과정에서 專門家의 자문은 물론 一般 社會人의 의견을 참작하여 制度의 變化 改善을 시도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이러한 文敎當局의 入試制度 改善努力이 적어도 社會輿論의 側面에서는 응분의 報償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大學入試問題는 敎育에 국한된 문제라기보다는 社會的 問題로 우리 社會에서는 昇格(?)하게 되었고, 社會輿論에 순응하는 修正 과정에서 나타난 빈번한 入試制度의 變化는 一貫性 없는 大入政策이라는 政策不信現象마저 수반하게 되었다.

이러한 社會的 輿論心理下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大入政策이 수립된다 할지라도, 일단은 社會輿論의 否定的 批判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불리한 輿論市場에 大入制度는 봉착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入試制度를 둘러싼 社會的 與件을 감안하면서, 84學年度 大入制度에 반영될 「前·後期 分割募集」의 問題를 受驗生, 大學, 國家라는 相異한 利害關係集團의 視覺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大學에서의 學生選拔과 前·後期 分割募集

大學의 學生選拔에서는 두 가지 基準이 默示的 또는 明示的으로 고려되고 있다. 하나의 기준은 특정 학생이 大學에서 공부할 수 있는 資質을 갖추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一般 修學能力 基準이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면 特定 專攻分野의 適性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適性基準이 적용될 수도 있다. 둘째는 一定한 入學定員을 초과한 應試者가 있을 때, 이들의 能力을 辨別해서 相對的으로 能力이 있는 者는 합격시키고 能力이 적은 者는 불합격시키는 「相對的 能力辨別基準」이다. 여기서는 修學能力 與否보다는 일정한 數의 合格者와 脫落者를 타당하게 결정하는 일에 主眼點을 둔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大學入試에서 制度의 妥當性問題가 社會의 이슈로 대두될 때, 보다 顯示的인 論議의 準據 틀로 고려되어 왔던 基準은 두번째의 相對的 能力辨別 基準이다. 따라서 受驗生의 大學에서의 修學能力 有無와는 상관없이 成績 서열상에서 定員의 範圍內에 들면 合格시키는 것이 妥當한 原理로 받아들여져 왔다. 이와는 반대로 아무리 훌륭한 成績을 가진 學生도 定員의 範圍內에 들지 못하면 탈락하는 것이 原則으로 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세칭 一流大는 물론 非一流大에서도 이왕이면 더욱 優秀한 學生을 뽑기 위해 높은 成績의 학생이 應試하도록 여러 가지 努力을 투입하고, 갖가지 戰略을 大學間에 競爭的으로 구사하기도 한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大學의 優秀一劣等性에 대한 社會的 評價가 大學에서의 敎育內容보다는 入學生의 豫試成績 平均에 의해 결정되는 社會的 風土에서, 大學當局으로서는 大入豫試에서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 일에 지나칠 정도의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學生選拔에서 前·後期問題에 대해 大學에서 크게 관심을 갖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연유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傳統的으로 大學에서의 學生選拔을 前期와 後期로 나누어 실시해 왔으며, 일반적으로 前期에는 社會的 評價가 높은 大學이, 後期에는 낮은 大學이 소속되는 傾向을 나타냈다. 따라서 대부분의 社會人들은 前期大學이 後期보다 좋은 大學이라는 생각이 固定觀念化되어 왔었으며, 또한 前期大는 먼저 뽑고 後期大는 前期大에 떨어진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기 때문에 前期大에 學業成績이 좋은 學生이 몰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大學入試에서 前期 또는 後期大學의 결정을 各大學의 自律的 選擇에 맡기도록 한 1982年度 이전만 하더라도 상당수의 名門 私立大學이 後期入試에 소속되어 있어서, 前期大學 失敗者가 큰 被害意識 없이 次善策으로 선택할 수 있는 後期大學이 상당수 있었다.

그러나 82學年度 自律化政策에 따라 많은 後期名門大學이 一次一流大學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前期入試大學으로 전환함에 따라, 1983年度 현재에는 全國의 98개 大學 중 62개 大學이 前期에 집중되어 있고, 募集定員의 84%가 前期에 배분되어 있다. 서울의 경우는 모집정원의 90% 정도가 前期에 몰려 있어 사실상 前期만의 單期募集으로 볼 수 있다. (表 1, 表 2 참조)

〈表 1〉 1982年度 入學人員의 前·後期 配分狀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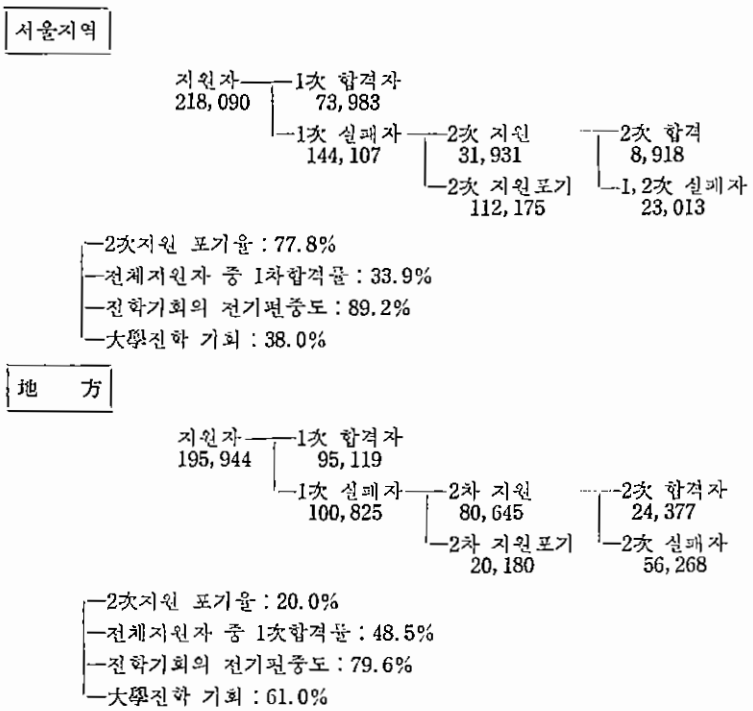
區分	大學數	入學人員構成	備考
前期	61	84.3%	一流大·綜合大 偏重
後期	36	15.7%	서울地域; 德成, 明知, 서울女大 정도

〈表 2〉 大學과 募集人員의 前·後期 分布(1983學年度) ( )는 比率(%)

區分	大學數			學生募集人員		
	서울	지방	計	서울	지방	計
前期	25	37	62	73,983 (89.24)	95,119 (79.60)	160,102 (83.55)
後期	10	26	36	8,918 (10.76)	24,377 (20.40)	33,295 (16.45)
計	35	63	98	82,901 (100.00)	119,496 (100.00)	202,397 (100.00)

大學受驗生이 前期에서 실패할 때 어느 程度가 2次大學을 지원 또는 中途 포기하고, 2차지원

〈圖 1〉



자 중 어느 정도가 合格 또는 脫落하는가를 圖式으로 나타내 보면 위와 같다.

이 圖式에서 보면 進學機會面에서 前期가 後期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大學進學者는 全體應試者의 38.0%에 불과하며, 前期의 進學機會比率이 89.2%에 이르고 있다. 地方의 경우에는 全體應試者의 61.0%가 大學에 입학할 수 있는 機會를 가지며 서울보다 약 10%가 낮은 79.6%가 前期에 진학한다. 1次에서 탈락한 學生이 2次志願을 포기하는 比率은 서울에서 77.8%, 地方에서 20.0%로 서울이 地方보다 월등히 높다. 이러한 통계자료를 감안할 때 前·後期間의 募集定員 不均衡 問題는 서울지역에서 특히 심각함을 알 수 있다.

Ⅲ. 前期大學偏重의 得失 貸借對照

前期大學偏重이 갖는 長短點은 利害關係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受驗生이라는 微視體系로부터 社會, 國家라는 巨視體系와 그 중간에 있는 大學이라는 中間體系를 상정할 수 있는 바, 어느 體系에서 問題를 照明하느냐에 따라 利害關係가 달라진다. 또한 各 下位體系속에서도 得失이 상반되기도 한다.

먼저 受驗生의 立場에서 보면 대부분의 大學이 前期로 편중될 때 前期大學定員이 증가하게 되므로 前期大學 入學可能性이 높아지는 長點을 갖는 반면, 前期에서 실패할 경우 中間層 以上의 學生이 자신의 慾求나 期待에 맞는 後期大學을 선택하기 어려워진다는 短點이 있다. 특히 現行의 先試驗·後志願의 制度下에서는 자신의 入學査定點數와 더불어 大學 및 學科選擇의 戰略이 중요한 當落變數로 작용하게 되므로, 大學選擇에서의 失手가 돌이킬 수 없는 結果를 초래한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또한 이와 같은 지원의 실수로 인한 不合格은 受驗脫落學生들에게 大學志望 失敗의 原因을 자신의 能力 결함보다는 制度의 탓으로 돌리는 社會心理的 狀況을 조장하는 문제점도 갖게 된다. 마땅한 2次大學이 없을 때 많은 學生이 재수할 가능성이 높으며, 서울의 경우 前期大 失敗者 中 77.8%가 2次志望을 포기하는 현상을 나타냈다. 또한 1次에 못

붙으면 갈 곳이 없다는 강박적 狀況은 學生들에게 우선 大學은 입학이나 하고 보자는 思考方式과, 떨어지면 재수한다는 再修意識을 조장시켜 왔으며, 入學이 불확실한 상황속에서 요행지원 또는 合格保障을 위한 下向調整 志願現象을 낳기도 했다. 前期選拔中心의 入試制度를 大學의 입장에서 평가할 때 大學의 社會的 名聲에 따라 利害關係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서울大를 비롯한 세칭 一流大學들은 前期選拔에서 오는 利點을 그대로 누릴 수 있으나, 過去 後期에서 前期로 전환한 中流水準의 大學은 後期에서 一流水準大學의 脫落者를 뽑을 때보다도 豫試成績이 낮은 學生들을 뽑게 될 가능성도 많다. 그러나 이들 大學들은 이러한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앞으로의 改善을 기대하면서 1次大學으로 머물기를 원하는 경향을 보인다. 前期大學 偏重狀況下에서 가장 得을 많이 보는 大學은 社會的 人氣度가 낮은 大學이다. 이들 大學들은 확실한 合格을 보장받을 목적으로 자신이 얻은 점수를 下向調整하여 지원하는 學生들을 選拔할 수 있다는 利點을 가질 수 있었다.

社會와 國家의 입장에서 前期偏重의 入試制度가 갖는 문제점으로는 1次에 실패한 우수한 受驗生이 재수하는 데서 오는 社會敎育的 問題와 이들 중 일부가 中途에 大學進學을 포기하는 데서 오는 人力開發側面의 非效率性 등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前期大學偏重이 수반하는 利點과 問題點을 學生, 大學, 社會 및 國家의 側面에서 檢討해 본 바, 利보다는 失이 큰 것으로 推論된다.

Ⅳ. 政府의 前期偏重에 대한 對處方案 ; 前·後期 分割募集

文敎當局은 84學年度 大學入試에서 前·後期 分割募集方案을 채택할 것으로 결정했다. 이 方案을 강구하게 된 背景은 大學의 前·後期 區分과 前期大學의 偏重에서 오는 問題點을 감소시켜 보자는 데 그 目的이 있다고 하겠다.

前·後期 分割募集의 內容을 요약하면, (1) 前期에 모집하는 大學을 大學의 自律的 決定에 따라 募集定員의 一定比率(예컨대, 60~70%)을 前期에 모집하고 나머지(30~40%)는 後期에 모집할 수 있으며, (2) 이러한 分割募集의 比率과 適用對象(大學全體, 特定 單科大學 또는 特定 學科)도 各 大學에서 自律的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3) 大學別 또는 學科別 등의 募集單位別로 그 比率을 달리할 수도 있다. 만일 前·後期 募集에서도 定員이 미달될 경우 現行制度에서와 같이 追加募集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後期大學은 당분간 後期에만 銓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前期에만 學生을 선발하는 大學에게는 定員未達時 追加募集을 허용치 않을 方針을 전·후기 모집제도의 추가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추가사항 중에서 현재의 後期大學에게 前期募集을 제한하는 事項을 둔 背景에는, 分割募集制度가 비록 실패하더라도 종전과 같이 後期大學을 확보해 둠으로써 現在보다는 나쁠 수 없는 安全瓣을 확보 하려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前期에만 모집하는 大學에게 追加募集을 할 수 없게 한 背景에는, 前後期 分割募集에 대한 誘引體制를 상대적으로 강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사료된다.

前後期 分割募集에서 위의 두 가지 추가사항을 제외시킨 조건하에서 이 制度가 갖는 의미와 효과를 分析해 볼 때 이 制度가 갖는 특징이 두드러질 수 있겠다.

첫번째 특징으로는 前期大學과 後期大學의 區分이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前期 또는 後期募集 아니면 2次에 걸친 分割募集이 大學의 自由選擇에 따라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名實相符한 前·後期大學 區分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세칭 一流大學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分割募集制度를 채택해 주어야 한다. 만일 一流大學은 前期募集을 고수하고, 中流大學만이 分割募集에 참여하면 그 形態만 바뀐 狀態로 前·後期의 區分은 그대로 存續되게 된다. 만일 여기에다 後期에만 뽑는 大學까지 합쳐지면 前期大學, 前·後期大學, 後期大學의 세 가지 大學區分이 새로이 형성될 수도 있다.

前·後期 分割募集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大學의 自律性 伸張과 大學間의 自由競爭이다. 과거에는 前期大는 前期에만, 後期大는 後期에만 學生을 뽑도록 文敎部에서 제한하고 있어 각 大學의 必要와 與件變動에 따른 募集時期의 變化가 大學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그러나 새로운 制度下에서는 募集時期, 分割募集大學이나 學科選定, 募集의 比率을 大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決定할 수 있으며, 分割募集의 方法도 大學의 必要에 따라 언제나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入試에서의 大學參與度가 提高되었으며, 大學의 意思가 學生選拔에 보다 크게 반영될 수 있다. 이 제도가 갖는 보다 직접적인 效果는 많은 大學이 分割募集制度를 채택할 때 前期偏重에서 오는 問題點을 적어도 部分的으로는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이 制度는 다음과 같은 問題點도 동시에 隨伴한다.

첫째는, 이 制度가 受驗生은 물론 大學에서까지도 생소한 새로운 制度이므로 受驗生은 물론 大學에 대해서도 새로운 適應負擔을 부가시키며 試行初期에는 예상하지 못한 試行錯誤에서 오는 副作用을 일정기간 감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同一 大學內에서 特定 大學이나 學科는 前期募集하고, 다른 大學이나 學科에서는 後期募集을 할 경우 後者의 學生과 敎授가 반발을 나타낼 수 있으며, 前期와 後期入學 大學 또는 學科의 學生間에 違和感을 조성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세째는, 分割募集制의 追加事項과 관련된 문제이다. 현재의 後期大를 계속해서 後期로 머물게 했을 때 平等의 原則에 위배된다는 理念的 問題點과 더불어, 後期大에서 成績이 우수한 學生을 뽑을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희박하게 된다는 점이다. 더우기 이러한 問題點들은 後期大學의 敎授와 學生들의 불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될 우려를 안고 있다.

끝으로, 前期에만 모집하는 大學은 追加募集을 할 수 없다는 條項이 前期募集의 大學立場에서는 부당한 간섭 또는 처벌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A를 돕기 위해 B를 벌 준다는 思考의 不當性을 들 수 있겠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로운 제도는 過去의 問題點들을 解消하는 데는 寄與하나 또 다른 새로운 問題를 수반한다. 새로운 制度의 妥當性은 이러한 利害得失의 貸借對照에서 利得쪽으로 기울 때 보장받을 수 있다. 全體的으로 이 制度에서 기대되는 利得의 側面은 受驗生과 國家, 社會에 많은 반면, 損失의 側面은 주로 大學과 관련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분석해 본 豫想損失의 內容을 살펴보면, 制度의 運營的 妙를 살리고 동시에 부분적 修正補完이 이루어질 때 적어도 부분적으로 또한 段階的으로 해소될 수 있는 性質의 問題點이라고 생각된다.

V. 前·後期 分割募集制度의 前提條件 및 補完事項

前·後期 分割募集制度가 소기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서 論議된 바 있는 다음과 같은 前提條件을 충족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첫째, 세칭 一流大學이 分割募集制度에 참여해야 한다.

둘째, 前·後期募集을 同一 大學校內에서 大學이나 學科에 따라 差別的으로 실시할 경우, 學校內에서 敎授間 또는 學生間에 나타날 수 있는 違和感을 해소시킬 수 있는 能力이 大學에 있어야 한다.

세째, 分割募集의 導入初期에서 야기될 수 있는 試行錯誤와, 이에 대한 受驗生, 大學 그리고 社會의 批判에 文敎當局이 대처하고 설득시킬 수 있는 힘과 能力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 制度의 試行過程에서 補完되어야 할 점으로는 먼저 현재의 後期大學에게도 前·後期分割募集을 許容하는 일을 들 수 있다. 이러한 方針은 文敎部의 發表內容에서도 이미 암시되어 있다. 또한 前期만 모집하는 大學에 대한 追加募集 制限이라는 否定的 誘導方式보다는 分割募集大學에 대한 誘引體制를 보강시키는 肯定的 方法이 보다 效果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制度도 그 運營過程에서의 조그마한 실수가 制度自體를 거부하게 되는 結果를 낳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文敎當局은 물론 이 制度를 도입하는 大學이 세심한 注意를 기울일 때만 이 制度는 定着될 수 있을 것이다. *